

도시건축의 패러다임과 장식효과에 관한 연구

Paradigm and Ornament effect in the Urban Architecture

문선욱

청운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Moon Sun-Wook

Dept. of Interior Design, Chungwoon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상징작용과 문양

- 2-1. 문양의 기원과 기능
- 2-2. 도시환경의 기호학적 해석

3. 건축패러다임과 장식문양

- 3-1. 건축환경과 사회패러다임의 변천
- 3-2. 재료와 표현기법

4. 도시건축의 장식효과

- 4-1. 도시건축 장식의 속성
- 4-2. 문양과 장식효과와의 유형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도시환경에서 건축물의 문양과 장식에 대한 것으로, 문양의 기원과 기능을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기호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상징체로써 건축의 재료와 장식의 상관성 및 표현효과의 특성 도출이 목적이다.

도시건축의 장식은 가공하지 않은 문화적 재료로써 근본적인 표상과 도상을 찾는 데서 출발한다. 그 목적은 보이는 현재의 문화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시대의 장식은 무한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 불확정성의 영향력 있는 기호가 된다. 재료는 장식을 통해서만 그 영향력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장식은 필수적이며 건축적 요소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건축 재료와 문양에 의한 장식들은 기호들의 혼합체로써, 문화와 연관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들과 개념을 생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을 필요로 한다.

내용적 차원의 의미론적 해석에 의하면, 현대 도

시의 건축 환경은 공간의 통합과 경계의 모호성 등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소통하고자 하는 특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물성 부여로 테크놀로지 지향 문화를 반영한다. 표현적 차원의 통사론적 유형은 건축물 구성요소의 깊은 깊이감에서부터 얇은 깊이감에 이르는 장식 효과, 본질적 구조 프로그램에서부터 비본질적인 구성재에 의한 장식효과, 색조표현, 레이어링, 픽셀레이팅 등 조화와 대비, 분화유형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의 세 가지 장식효과 범주로 분류하여 도출할 수 있다.

장식, 상징, 패러다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origin and function of patterns in aspect of semiology, and to derive the relativity of architectural material to ornament and characteristics of presentation affects with paradigm.

Ornament of urban architecture may start with found imagery or iconography as raw cultural material. Its primary purpose is to render the invisible forces in contemporary culture visible. So that ornament becomes a contingent sign capable of generating an unlimited number of resonances at the best of times. It is through ornament that material transmits affects. Ornament is therefore necessary and inseparable from the object of building. Ornament that material and pattern is a composite one, made up of visible as well as invisible forces. Architecture needs mechanisms that allow it to become connected to culture, and achieve new images and concepts continually.

A semantic approach,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al environment communicate over a very wide field, united space and equivocality of boundary, and reflect the culture toward technology that gives newly shape through technical innovation. The study derives three classifications in presentation of ornament: (1) depth orders building components from the deepest to the thinnest (2) compositional material ordered from the most intrinsic to the interior content; (3) interplay between depth and material like differentiation and geometrical pattern.

Ornament, Symbol, Paradig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중국과 중동 등 아시아의 도시들은 최첨단 초고층 빌딩 등 탁월한 조형성으로 장식 효과를 갖는 건축물 등을 앞다투어 건설하여 도시 경관이미지의 정체성을 각인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랜드마크를 형성하며, 도시의 비전과 발전의 상징 기호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 현상들에서 도시는 상징성을 갖는 장식효과들의 말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 이미지를 창조하며, 정보를 발산하는 것이다.

상징작용은 인간 고유의 속성으로, 삶의 주변에서 경험의 구성요소들이 의미라는 다른 구성요소에 대한 믿음과 정서, 의식을 이끌어내게 하며, 그 매개체로써 문양과 장식이 기능적 역할을 한다. 도시환경에서 건축은 도시생활을 대변하며, 재료와 그에 의한 구조적 문양 및 장식으로 수많은 상징작용을 내포하게 된다. 이들 상징 매개체는 정보를 공유하는 도시라는 특정 지역, 즉 한 집단의 시간적·공간적 동질성을 띠게 된다.¹⁾ 공유된 도시의 동질성은 무의식의 발로로써 도시의 정체성으로 지각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특정 지역의 한 집단에서 획득되고 공유된 상징적 의미의 원형은 근본적으로 상징체계는 유지되지만, 시대에 따라서 변형되고 변질될 수 있다. 특히 급변하는 21세기의 도시환경에서는 그 양상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건축에서 재료, 시공방법에 의한 장식과 문양의 심미성 표현은 곧 그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기호의 산물이라는 가정 하에 출발한다. 연구의 목적은 패러다임의 변천과 도시건축의 상징의미 및 신재료의 출현에 따른 장식문양의 표현방법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도시건축에 있어 장식의 속성과, 장식효과와 유형특성을 도출하는데 있다.

1.2. 연구와 범위와 방법

도시의 건축물은 가로시설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리만큼 도시경관이미지에 있어서 인공적 주요 구성요소일 뿐 아니라 도시 활동의 배경이 된다. 본 연구는 도시환경에서 문양과 장식의 표현에 대한 것으로, 모더니즘 이후의 도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문양의 기원과 기능,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기호학적 상징작용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건축과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천과 과학기술 발전 등

에 따른 건축물의 재료, 구조에 의한 장식문양 표현 기법의 상관적 특성 및 변화과정을 조사·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통해 장식이 갖는 속성의 특성과 장식효과를 위한 표현유형과 특징을 도출한다.

2. 상징작용과 문양

2.1. 문양의 기원과 기능

문양은 우리말로 '무늬'라 하며 미적감흥을 일으키는²⁾ 상징의미의 도상 및 부호체계로서 언어와 문자의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조형의식을 표현하는 원천으로 점이나 선, 색채를 도형과 같이 형상화하여 실재하거나 상상의 물상이 양식화된 형태로써 장식 전체가 하나의 질서 속에서 전개되는 조형 단위이기도 하다.

문양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문자 및 기호의 발생 연관설로, 오늘날과 같이 감상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용도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자연의 현상과 사물의 모양을 그림으로 새겨 의사전달 수단으로 삼거나, 주술적인 효력을 위한 부적에 비로소 기호와 문자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상형을 결국 문양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이다. 또 하나는 의생활과 주생활에서 신체의 보호와 장식의 본능 등으로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된 편직물이 발명되고, 발달되면서 다양한 기하학적, 추상적인 문양양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인류는 점차 그러한 문양에 상징의미를 부여했다는 견해이다.

어떤 기원이든 문양은 선 등의 질감에서부터 공예·회화·건축 등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아름다움 이전에 인간 본연의 기원과 욕구를 다분히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통해 발현되는 창조적 산물이다.³⁾ 따라서 상징적 의미가 더욱 중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물의 진실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그 문양의 성격에 따른 용도와 지정된 배풀어진 자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건축공간은 인간의 총체적 삶을 담는 그릇이자 소유주이므로 이에 사용된 문양은 그 특성상 개인적이기보다는 집단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비교적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며, 당대의 특성과 정신을 잘 드러낸다.⁴⁾ 따라서 언어나 문자와 마찬가지로 사용 주체인 민족과 그 민족이 처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고유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문명적이고도, 문화적인 소산을

2) 신상재(1987), 한국인의 생활문양, 선진문화사, p2

3) 허균(2004), 전통문양, 대원사, p11

4) 신영훈(1990), 한옥의 건축도예와 무늬, 기문당, p12

1) A. 야페, 이희숙 역(1997), 미술과 상징, 열화당, p.138

특징으로 한다.

2.2. 도시환경의 기호학적 해석

기호학은 상징체로부터 창조되는 의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기호에 의해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다룬다. 그 대상은 자연언어만이 아니라 인간이 여러 차원과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건축환경 역시 그 대상이 된다. 소쉬르에 의하면 기호란 의미의 운반체인 '기표'와 기호내용 즉 개연이나 의미인 '의의', 그리고 기표와 의의가 연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요소인 '기호자체'로 분리하고 있다. 기호는 대상체를 사라지게 하는 대신 해석체를 떠오르게 하여 폭넓은 의미의 세계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⁵⁾ 언어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상징 작용이며, 그 특성은 표현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 인류는 자신을 표현하여, 대상과 소통하기 위해 상징작용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는 곧 자기창출의 과정이다. 한편 도시는 한 사회를 표현하며 관련된 사고를 가능케 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행동을 지시한다. 사회는 공익을 보존함과 동시에 개인적 입장을 보존하는 상징의 유효성을 획득하여 인간의 정서적 욕구와 소속감 및 종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치 있는 상징 효과를 얻게 된다. 즉 상징은 개개의 구성원이 그 사회의 필요성에 순응하도록 기능하고, 개인의 특정 행동을 이끄는 방향 제시와 함께, 개별적인 대중을 원활하게 운영할 공동체로 조직할 힘을 얻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상징적 표현은 본능에 정서를 추가함으로써 사회를 보존하고, 이것이 표현하는 개별적 묘사에 의해 이성의 발판을 제공하게 된다.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유효한 상징작용에는 심미적 특징이 있으며, 의미는 상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자극된 정서와 감정을 획득한다.⁶⁾

모리스(1938)에 의하면 기호와 기호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통사론(Syntax),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의미규칙을 규정하는 의미론(semantics), 하나의 기호가 어떠한 해석내용(interpretant)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호의 사용자인 해석자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분석하는 어용론(pragmatics)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⁷⁾ 이를 도시공간에 적용하면 주변 환경 속에서 한 건물의 위치로부터 유추되는 통사론적 의미, 어떤 요소가 표현하거나 지시하는 규범과 개념 및 태도인 의미론적 의미 그리고 그

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상징을 관련시키는 어용론적 의미로 볼 수 있다. 도시 내에서 건축공간은 기호체계로서 일정한 형식을 이루게 되며, 기호작용은 드러나 있는 실질들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과 공간이라는 형식들의 관계성 즉 기의 범주와 기표 범주의 관계성에 의해 발현되고 의미가 생성된다. 즉 도시공간의 의미는 사회문화적, 기술적 제 조건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오직 통사론적인 차원을 통해서만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 미디어, 기호로 구성된 문화적 컨텍스트 속에서 물리적 구성체로서만이 아닌 사회·문화·사상적 관계 속에서 논의되고 해석되어야 한다.⁸⁾

문양이 갖는 의미와 경향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기는 하지만 상징적 의미는 과거에 비해 매우 약화되어 장식적 의미나 기호적 의미가 크다. 현대사회는 전통사회와는 다른 국가관, 종교관 등 이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자연의 물상과 현상의 문양은 배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박쥐문의 경우 동북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는 蝙蝠의 蝠은 음이 같은 福으로 보아 전통적으로는 선호하였으나 서양에서는 사악한 악마의 의미로 보편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꽃문 중 전통에서는 찾기 힘든 무궁화문이 현대 한국의 국가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농악놀이 모습 등이 사실적 문양으로 많이 채택되어, 도시공간 속에서 민족성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또한 문양의 형태와 장식유형은 그것을 디자인하는 이의 작업 성향과도 관련되지만 최근 풍토성, 역사성을 중요시하며, 고유한 향토성 부여를 통해 도시의 자기창출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과 건축환경이 갖는 사회기호학적 구조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틀 안에서 건축물의 재료와 문양이라는 특수한 공간 언어체계의 표현적 차원에 대한 통사론적 해석과 내용적 차원에 관한 의미론적 해석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3. 건축패러다임과 장식문양

3.1. 건축환경과 사회패러다임의 변천

건축에 있어서 나타나는 장식문양은 도시와 건축이 만나는 접점으로써 수많은 개념과 논리를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동시에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인 기호로써 문화의 영역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건축환경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천과정의 고찰을 통해, 문화를 상징하는 기호로서 장식의 전달하는 의미를 짐작

5) 김경용(1996),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pp18~20

6) A. N. 화이트헤드, 정연홍 역(1989), 상징작용 그 의미와 효과, 서광사, pp64~83

7) Jong Lang(1996), 건축이론의 창조, 도서출판 국제, p310

8) 김주미(1997), 환경의미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방법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6(10), pp36~48

할 수 있다.

고전 건축의 유클리드 기하학과 자연 형태들을 유일한 체계로 통합하려는 경향은 고대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르네상스는 인간 신체에서 수학적이고 기하학적 원리로 삼을 수 있는 보편적인 크기와 비례관계의 탐구를 통해 미의 합리성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장식문양은 단순 기하학의 절대적인 미와 상대적인 자연미를 구분하여 표현되었다. 이때 건축에서 장식과 문양이 다분히 사회의 계급과 사상의 표현으로 상징적 역할을 담당했다. 근대 이후 사회는 계급사회의 몰락과 자본주의에 의한 부의 축적, 사상적 변화와 함께 열린 세계로 진행되며, 건축공간에서는 물리적·시간적 경계가 점차 해체되어 가고 있다. 특히 근대건축은 철과 유리, 시멘트 등의 출현에 의한 콘크리트와 철골구조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재료와 구조기술의 발달로 건축은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져, 요소들의 솔직하고 직접적인 존재미를 추구하며, 부가적 장식을 죄악시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문법적 투명성의 진부함은 건축의 표현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문양에 의한 장식을 사용했으며, 해체주의는 기하학적 플라주를 사용하였다. 현대도시의 건축은 대외적으로는 국제화의 선두를 표방하며, 신기술에 의한 최첨단 초고층 빌딩의 조형적 장식성을 과시하며 오브제적 랜드마크로써 기능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공간, 영상, 미디어,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소통하는 인터랙티브 디자인 양상을 보인다. 즉 국제사회에서 도시 위상의 제고와 부각을 위한 건축의 오브제적 장식효과와 함께 도시 내부에서는 현대 고도소비사회의 기호와 상업주의를 반영하고 대중적 정보와 이미지들을 전달하기 위한 미디어 건축이 실현되고 있다. 건축의 입면 파사드가 싸인과 로고, 트레이드마크 등의 문양이 장식되어,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며 매체적 성격을 띠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브랜딩에 의한 건축 파사드의 장식문양

한편 아직까지 건축가들의 반응이 미온적이기는 하나, 최근 건축의 경향으로 장식적 파사드를 조심스레 논의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 아르누보 운동과 같이 보편화될 조짐을 보이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차갑고 비인간적인 느낌의 철과 유리 사용의 현대건축

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최근 대두되는 자연에 회귀하고자 하는 느린 감성적 패러다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변천과정 고찰에서 건축환경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것은 유동적이고 다양한 가치관에 의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자와 소통하기 위해 사회적·문화적·기술적인 부분에 걸쳐 총체적인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재료와 표현기법

누구도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환경에서의 건축의 장식문양은 순수조형미술의 단순한 미학적 견지가 아니라, 기능적이고 안정된 구조적 측면이 서로 필요충분조건의 관계로써 고려되어야 한다. 재료의 구축을 통한 물리적 건조 환경은 건축의 재료에 의한 재질감과 그 형상에 의한 장식들에 의해서 보이는 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을 만드는 혼합체이다.⁹⁾ 이는 건축에서 다양한 정보와 요소간의 관계에 따라 지속적인 의미 생산과 중재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건조 환경에 반응하는 인간의 지각은 경험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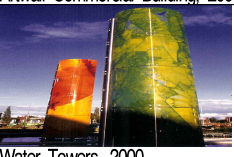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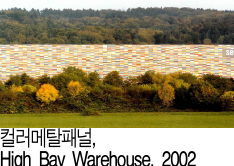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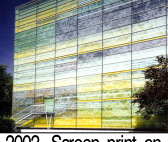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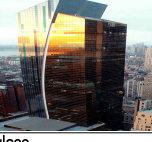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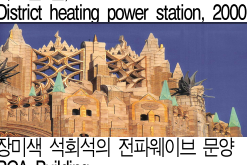
대표적인 재료들의 문양 표현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벽돌이나 블록, 석재와 같은 조적재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쌓기와 축조방식에 따른 문양으로 전통적인 장식효과를 가져온다. 특수한 공간에 문양전이 사용되거나 질감이나 색상을 달리하는 모자이크기법이 현대 도시에는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석재에 문양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그 방식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현대에는 돌을새김을 한 석판재를 붙이거나 색채와 질감이 다른 종류의 석재를 혼용한 모자이크로 문양을 표현하는 방식과 표면마무리의 정도에 따라 질감을 달리하여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석재 외에 여러 가지 재료를 혼용하여 파상문, 띠문을 만들기도 한다.

콘크리트는 공간적 측면에서는 그 구조에 의해 격자형과 같은 독특한 패턴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요소로써 장식은 경화되기 이전 유동성을 활용하여 원하는 문양을 거푸집에 의해 만들어내는 구조적 방식과, 면적 요소로써 양생 과정이나 후에 문양을 내는 유형이 있다. 금속재에 의한 장식효과는 철골구조의 구조적 패턴과 철, 스테인레스, 구리, 황동, 알루미늄 등 여러

9) Farshid M. & Michael K.(2006), The Function of Ornament, Boston: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pp5~6

금속을 주로 창호용 철물, 금속담장, 대문, 계단 및 철제난간 등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장식효과를 얻는다.

[표 1] 다양한 재료에 의한 문양표현

재료	사례 예시
철	  Artwall Commercial Building, 2003 George Washington Bridge
스테인레스 스틸	  Water Towers, 2000 Ministry of Culture Paris, 2004
기타	  컬러메탈패널, High Bay Warehouse, 2002 최초 Nirosa(Chrome, steel, nickel 합금)사용 Chrysler Building dome 아간경관
유리	   (왼쪽) Municipal Building, 2002, Screen print on glass (중앙) Hamburg Law Library 프린팅된 나무이미지의 유리스킨과 인접의 변화되는 패턴형성 (오른쪽) The Westin Time Square, 2003, 21가지 타입의 유리패널 대비
기타 재료	   (왼쪽) Skylight Graphics Art Center, 2004, 불소합성물에 의한 문양 (중앙) Idia Store (Library), 2004, 컬러 유리 (오른쪽) Empire Theatre, 2002, 6mmx15mm에니멜이 처리된 강화유리
	  Library Eberswalde, 1999 프린트된 콘크리트와 유리의 반복 아크릴 월, District heating power station, 2000
	  니뮷트문양의 컬러프린팅 그라데이션 Ricola wavehouse, 1993 장미색 석회석의 전파웨이브 문양 RCA Building

타일은 표면에 요철을 두어 문양을 새기는 방법과 소성과정에서 채색 또는 전사지를 붙여 문양을 도안하여 사용하는 방법, 시공과정에서 조합하여 문양을 만들어가는 모자이크법이 있다. 페인트는 현대도시에서 문양표현의 값싸고 보편적인 재료로 채화방식과 도장공법이 있다. 유리, 아크릴, 유공판넬,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넬, 실크스크린과 코팅기술 발달, 유리패널 투명도의 다양화 같은 신재료와 신기술은 건축 표피에 새로운 시도를 유도하며 자유로운 장식표현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표현기법상의 유형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여러 관점에서 분류되고 있다. 박홍규(2003)의 분류에 의하면 바탕재의 표면에 유동 액상의 도료를 도포하고 건조시켜 피막이나 도막을 형성시키는 표면채화, 캐스팅 공법의 부조로 된 판재를 벽돌조나 철근콘크리트조의 벽이나 기둥 등에 붙이는 기법, 안팎이 통하는 구멍을 벽에 뚫어 창을 내는 등의 방법에 의한 문양표현과 건축 재료를 조합하여 패턴을 표현하는 모자이크 등 4가지로 구분¹⁰⁾하고 있다.

[표 2] 표현기법에 따른 문양표현

구분	사례 예시	
	사실적 표현	추상적 표현
표면채화	 Atrium Stadhuis The Hague, 2002 Emulsion on wood 5000x2500	 엘 카미노 쇼핑센터 자연적 패턴과 타일 위 페인팅된 합판 부착
부조	 ORCM building, 1932 피랑과 금색으로 영웅들의 형상 묘사	 Stratis Residential Building Auckland, 2005, 콘크리트
투각	 뉴욕시 소재 스포츠센터 방재창호	 Sfera Commercial Building, 투각 티타늄 패널 디테일
모자이크	 McComick-Tribune Campus Center, 2003, 픽토그램에 의한 패턴	 Tmrovski Residential Complex, 2004 알루미늄 판 위 세라믹

장식의 표현은 재료와 표현기법의 기술적 부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첨단 재료와 구조기술에 의한 건축물은 오브제적 기하학 문양패턴의 구조미를 가능하게 하며,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패턴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구조공학의 발달을 배경으로 한 자유로워진 파사드는 신재료의 독특한 물성표현 등 독립된 장식효과를 발하며 건축요소 이상의 역할을 담당한다.

4. 도시건축의 장식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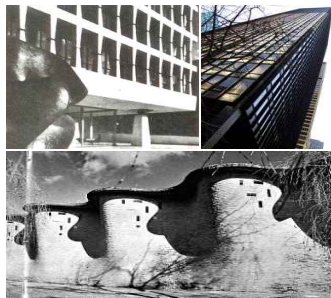
4.1. 도시건축 장식의 속성

(1) 장식의 불확정성

장식은 표현되지 못한 생각과 사상, 평범한 사실

10) 박홍규(2001), 현대건축물에 적용된 문양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동서대 석논, pp32~41

을 창조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작업의 동일선상에 있으며, 우연히 영향력을 주고 반향을 가져오는 커뮤니케이션물을 만들어낸다.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장식의 역사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사이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로마의 포치공간에서부터 바로크의 극적 효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건축에서 기능과 구조보다는 장식의 기호적 예술성이 더 중요하다는 장식이론에서부터 장식은 죄악이라는 반대이론까지 정렬시킬 수 있다. 전통적 사회에서 장식은 문양 사용을 통해 구별의 의미로 표현되었으나, 근대 사회는 개별성의 강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억제하므로, 장식이 갖는 구별의 사회적 기능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즉 부가적 장식을 통해 과시되었던 부르주아와 대비되는 건축으로 근대 산업화 이후 오랜 기간 모더니즘의 투명성은 형태 안에서 더욱 솔직함과 진실함이 곧 미적 가치가 된다. 더 이상 건축이 기능을 숨기기 위해 다른 상상하지 않아도 되며, 시각적으로 명백한 건축물이 즉각적으로 보이도록 디자인하게 되었다.



[그림 2] 구조에 의한 문양패턴

상작 : Banque Lambert Headquarters, SOM(1963) - 격자문(lattice)
 상우: Seagram Building, Ludwig Mies van der Rohe(1958) - 수직문(vertical)
 하 : Church of Christ the Worker, Eladio Dieste(1960) -파동(undulated)

그러나 이후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i)등은 단조롭고 냉소적인 모더니즘을 비판하며, 건물 내부의 설비 등의 규범을 밖으로 표출하는 데 열중하였으나, 이는 건축으로써 기존의 문화적 표현을 무시하였으므로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적 언어나 이해 시스템이 결여되었으므로, 상징성을 내포한 기호로써 그 의미가 퇴색되고, 포스트모더니즘은 급속히 관심 밖으로 사라지며 진부해졌다.

의미전달의 기능을 갖는 물려받은 기호들은 특정 문화의 국면과 문맥 속에 남아 있다. 하지만 문화는 현존하는 것을 재생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들과 컨셉을 생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건축에서 장식이란 문화적 특성을 갖고 생산되어야 하는, 단정하기 어려운 불확정성을 갖고 있다. 바로 그 시대의 장식은 무한히 많은 반향

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불확정성의 기호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축이 문화에 집중하는 태도를 갖고 창조되어야 한다.

(2) 장식의 필연성

현대 문화에서 장식은 보이는 힘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힘을 함께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중요하다. 도시건축의 장식은 가공하지 않은 문화적 재료로부터 근본적인 표상 또는 도상을 찾는 데서 출발한다. 루이스 설리만은 건축에 있어서 일관적이고 유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표현한 건축가로 유명한데, 그 유기성은 순수한 건축적 표현이 아닌 재료의 구성으로부터 나타나고 분리될 수 없는 문화와 혼합된 장식을 도출하며, 보이지 않는 힘을 표현하였다.



[그림 3] Merchant's National Bank, Louis Sullivan, 1976

장식은 재료의 근본으로부터 그 형태가 나타나고, 집합하고 성장하는 건축의 과정을 통해 힘을 부여받는 표현이다. 재료는 장식을 통해서만 그 영향력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장식은 필수적이며, 건축적 요소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또한 장식은 선험적 경험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이 아니며, 그 속성은 어떠한 의도도 갖지 않고 숨은 의미도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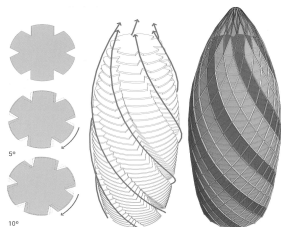
4.2. 문양과 장식효과의 유형

최근 현대건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건축 작업이 바뀌고, 새로운 재료사용, 미의식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문양과 장식의 표현 방법이 보편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50년대의 국제주의 양식이 해체되고 1980년대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형태구성 원리를 지향하는 이즘은 사라지기 시작하여, 어떤 특정한 사조로 정리되지 않는 다양한 경향의 현상이 공존하므로 구성 원리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건축물의 재료, 특히 구조와 마감재에 대한 가시성은 도시의 경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며, 이들에 의해 형성된 건축의 외형과 입면 파사드는 건축의 본질을 반영하면서 도시환경으로 발산되는 하나의 기호이다. 건축미는 누구나 시각적으로 인지하게 되며, 그 조형적 조화를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장식효과의 유형을 도출하기 위한 사례는 건축전문 사이트¹¹⁾의 작품관련 기사에서 문양과 패턴, 장식에 대해 언급된 96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근대이후의 시대적 범주를 가지며,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1950년, 1980년, 2000년을 기점으로 32개, 30개, 34개의 사례로 연구하였다. 분류유형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건축구조물의 유형학적 외관의 깊이감에 의한 장식효과와 재료의 구조적 축조법과 파사드 구성방법을 토대로 건축의 본질성 여부에 의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앞서의 두 가지 유형범주 내의 세부항목들이 상호작용하여 장식효과를 나타내는 유형 등 모두 3가지 범주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건축물의 장식효과는 사회·문화·기술의 총체적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상징적 장식효과가 동시에 표현되기도 하여, 유형분류 사례예시와 시대에 따른 특징적 장식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세한 사례를 제시했으며, 상호작용 유형은 두 가지 이상의 효과에 의하므로 복수로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1) 깊이감에 의한 장식효과

깊이감에 의한 장식의 표현효과는 유형학적인 건축 형태에 기인하며, 입체적 볼륨감에 의한 효과에서부터 초표피의 면까지 4단계로 분류하였다. 즉 오브제적 형태, 구축적 구조, 스크린, 표피 등 건축물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의 깊은 깊이감에서부터 얇은 깊이감에 이른다.



[그림 4] 나선형의 오브제적 형태 구성도 (30st. Mary Axe Street, 2004)

장식은 건물의 전체 형태, 적재연결구조물, 피복재의 단면의 두께 등 활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깊이감이 표현된다. 오브제적 형태 유형은 전체 건물 조직의 결과로써 볼륨의 형태에 의한 오브제로 가장 깊이 있는 장식효과가 나타난다. 다음단계의 깊이감 유형인 구축적 구조 유형은 내력벽 구조물의 구축방법이 곧 파사드의 장식효과를 가져온다. 이 두 가지의 미학적 장식 표현은 건축물 자신을 주장한다. 반면, 스크린 유형은 내부의 가시성이 가능하도록 작동되거나 유지하면서, 내부와 외부 공간 사이의 삼입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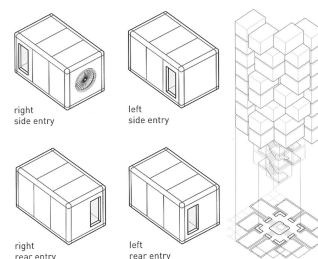
층들을 통해 조작되는 것이고, 표피유형은 건물 내부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독립된 층을 추가하여 표현한 장식유형이다. 공장은 차폐를, 상점은 소비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상징을 위한 칸막이 스크린이나 표피유형의 장식표현으로 얇은 깊이감 효과를 추구한다. 이러한 표현은 기술 발달에 따른 구조의 독립성을 배경으로 하며, 구조와 분리된 건축에서의 면은 이전의 벽면과는 다르게 침단의 재료로 두께는 더욱 얇아지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대적 기술성과 상업성의 기호로 작용한다.

[표 3] 깊이감에 의한 장식효과

유형	사례 예시	
오브제적 형태	무정형	나선형
	 Selfridges Department Store, 2003	 30st. Mary Axe Street, 2004
구축적 구조	스케일감이 없는	기하 패턴
	 MIT Simmons Hall, 2002	 시노노메 캐널코트 주거동, 2004
스크린	텍스처	모듈러
	 Nexus Housing, 1991	 Berlin Free University, 1973
표피	다양한 규격	연속적, 브랜딩
	 Silodam Housing, 2002	 Santa Monica place Garage, 1980

(2) 구성재에 의한 장식효과

두 번째 범주는 구성재에 의한 장식효과로, 건축을 구성하는 본질적, 비본질적인 관점으로부터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림 5] 프로그램 패턴 구성도 (Capsule Hotel,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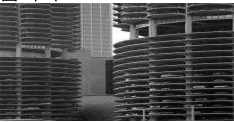
가장 본질적으로, 건축을 형성하는 단위공간 및 유닛을 조합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되는 문양과

11) <http://www.telegraph.co.uk>,
<http://www.archityperreview.com>,
<http://www.archityperreview.com>,
<http://archrecord.construction.com>

패턴의 장식효과, 모더니즘 구조 요소의 정형적 기하학과는 구별되는 본질적 건축 구조요소에 패턴을 부여하는 구성재의 문양화, 그리고 건축 내·외 공간을 투과하며 건축의 모호한 경계로써 장식효과를 주는 색채와 빛의 유형, 건축의 물리적 구성에 있어 가장 비본질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파사드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현대건축의 사례들에서 강조되는 비본질적 장식표현은 건축물 내부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결정적 중요작용은 없으며, 다만 내부공간과 도시경관에 생명력 있는 감동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하며, 소통하는 기호로 상징성을 갖는다.

[표 4] 구성재에 의한 장식효과

유형	사례 예시	
프로그래밍 ↑ 구성재 문양화 색채와 빛 ↓ 이미지	본질적	모으기(집합)  
	구성재	불규칙한 패턴에 의한 규칙적 알고리즘  
	문양화	색채  
	색채와 빛	기하학
	비본질적	정보전달  

(3) 상호작용에 의한 장식효과

같은 구성재라 하더라도 다른 유형에 의거하여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생산시스템은 파생과 주문제작의 가능성을 갖게 함으로써,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들에 감응하는 재료의 교묘한 처리로 다양한 장식효과를 구성하게 된다. 앞서 오브제적 형태, 구축적 구조, 칸막이 스크린, 표피 등의 깊이감에 의한 장식효과 유형들과 프로그램, 구성재 문양화, 색채와 빛, 이미지의 구성재에 의한 장식효과 유형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더욱 다양한 장식효과를 보여준다.

상호작용의 결과로 대개는 대비와 조화, 그리고 분화되는 유형으로 또다른 새로운 유형이 창출된다. 빛에 의한 건축물의 형태표현과 문양표피에 의한 빛

의 투과, 그리고 재질감의 조화와 대비의 장식효과를 보인다. 재료들의 타일링에 의한 이미지 표현, 색채에 의한 색조표현, 레이어링, 픽셀레이팅 등 분화 유형은 경제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장원리의 상징기호로, 현대인의 보편적인 미적가치관과 정서에 부합하여 선호되는 현대적 장식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문양이 상징의 의미가 있더라도 그 의미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장식적으로 국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표 5] 상호작용에 의한 장식효과

유형	사례 예시	
대비 & 조화	빛+형태→조화  	표피+수놓은 문양 빛→대비
	Torre Agbar 본사, 2004 	표피+이미지→픽셀레이팅 

이상의 장식효과 유형의 사례들이 각 시대에서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 그 상관성을 종합하면 [표6]과 같다.

[표 6] 시대에 따른 장식효과 사례수
(상호작용에 의한 장식효과와 복수집계는 ()에 표시)

시대구분		1950년~		1980년~		2000년~	
사례수		32		30(2)		34(20)	
장식유형		단일 효과	상호 효과	단일 효과	상호 효과	단일 효과	상호 효과
깊이감	형태적 오브제	-	-	1	1	2	-
	구축적 구조	13	-	3	-	3	1
	스크린	6	-	9	-	6	1
	표피	-	-	1	-	1	4
구성재	프로그램	6	-	-	-	-	-
	구조 문양화	6	-	2	-	3	-
	색채 & 빛	1	-	8	-	5	4
	이미지	-	-	5	-	4	4
상호작용	조화와 대비		-		1		1
	분화		-		-		5

깊이감 장식유형에서는 모더니즘의 국제주의 양식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던 1950년 이후, 단순기하학의 구축적 구조가 19개 사례 중 13개로 68%를 차지하고, 1980년 이후는 스크린에 의한 장식유형이 깊이감 전체 사례 14개 중 9개로 64%를 차지하면서, 이전시대의 구축적 구조에 의한 장식에서 건축입면의 얇은 깊이감에서 비롯되는 장식효과를 적극 시도하면서 대세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깊이감은 스크린과 표피유형이 각각 깊이감 전체 18개 사례의 39%, 28%를 차지하는 동시에 기술력을 뒷받침으로 바로 전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매스로써

오브제적 형태의 장식효과도 2개의 사례인 11%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깊이감에 의한 장식의 표현은 덩어리감과 표피의 양극화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전 시대에 나타난 스크린 유형은 예로 사리넨의 미국대사관(London, 1960)과 같이 고정되고 불투명한 솔리드 스크린인 반면, 그 이후는 허조그와 뮈론의 Signal Box(Basel, 1994)와 같이 작동이 가능하거나, 반투명 또는 투명한 스크린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투명도의 조절이 가능한 스크린이 부각되면서, 이미징 또는 색채와 빛 등 다른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구성재에 의한 장식유형에서는 1950년 이후에는 프로그램과 구조 문양화의 본질적 양상이 36%, 5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980년대에는 53%의 색채와 빛, 33%의 이미지에 의한 비본질적 양상에 의해 장식효과를 꾀하고 있다. 2000년대에 와서 프로그램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골고루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비본질적 구성재 유형과 얇은 깊이감 유형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조화와 대비, 분화의 장식효과로 다양성의 상징체로써 기호작용을 하고 있다.

5. 결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에 대한 견지는 지역과, 민족의 문화적 기호의 산물로 많은 차이를 보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함께 변화한다. 본 연구는 시대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천에 의한 상징성을 변화와 그에 의한 기호로써 도시 건축의 장식효과와 문양에 대해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건축물은 도시공간 속에서 개별 오브제로써 도시 경관을 구성하고 시대의 패러다임에 상징하는 기호로써 경관을 연출하며 가치를 발한다. 이 때 건축의 재료에 의한 재질감과 그 형상에 의한 장식들은 보이는 힘으로써 보이지 않는 힘을 만드는 기호들의 혼합체이다. 또한 문화와 연관되어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밖에 없는 불확정성을 가지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들과 컨셉을 생산할 수 있는 필연적인 메커니즘을 요구함도 알 수 있었다

건축환경의 패러다임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문화적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에 의한 기호로서 상징체인 건축은 사회전반에 걸친 문화와 정책에까지도 총체적 영향을 끼친다. 건축의 문양과 장식에 있어서, 내용적 차원의 의미론적 해석에 의하면 현대 도시 건축은 공간의 통합과 경계의 모호성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소통하고자 하는 특성

을 보이며, 기술혁신을 통한 테크놀로지 지향문화를 상징한다. 패러다임의 상징성에 의한 기호로써 장식 표현의 특징은, 표현적 차원의 통시론적 장식의 표현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즉 건축물의 유형학적 형태의 깊이감에 의한 장식 효과, 구축과정의 본질적, 비본질적 구성재에 의한 장식효과, 조화와 대비, 패턴과 분화유형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세 가지 장식효과 유형으로 분류하여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식효과는 사회의 건축패러다임과 부합하여, 시대에 따라 두드러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변형과 양극화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면서 시대별 총체적 미의식을 반영하는 기호로 작용한다.

도시는 한 사회의 시간적, 공간적 동질성을 갖고 있으므로, 상징의 기호로써 건축의 장식을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시대의 패러다임 변천에 따른 통시적 관점의 특성 분석 뿐 아니라, 지역과 도시별 정체성 표현인 공간적 범위에 따른 공시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용(1996),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주미(1997), 환경의미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 방법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6(10)
- 민자경(2005), 브랜드 개성 형성에 있어서의 파사드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 박홍규(2001), 현대건축물에 적용된 문양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동서대 석논
- 신상재(1987), 한국인의 생활문양, 서울:선진문화사
- 신영훈(1990), 한옥의 건축도예와 무늬, 서울:기문당
- 허균(2004), 전통문양, 서울:대원사
- A. 야페, 이희숙 역(1997), 미술과 상징, 서울:열화당
- A. N. 화이트헤드, 정연홍 역(1989), 상징작용 그 의미와 효과, 서울:서광사
- Jong Lang, 건축이론의 창조(1996), 서울:도서출판 국제
- Farshid M. & Michael K.(2006), The Function of Ornament, Boston: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 Petra Schmidt 외(2007), Patterns in Design:Art and Architecture, Birkhauser
- Richard B. & Carol W.(2005), NewYork DECO, Welcome Books
- <http://www.telegraph.co.uk>
- <http://www.architypereview.com>
- <http://www.architectsjournal.co.uk>
- <http://archrecord.construction.com>